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1년 1·2월 제50호

COVER STAR

대한민국 핸드볼 전설
윤경신

통권 50호 특집

<핸드볼코리아> 역사
한 눈에 알아보기

KOREA LEAGUE

새 팀 찾은 이적생
코트 빛낼 신입생

INTERVIEW

인천도시공사 원클럽맨
심재복

RIVAL

재도약 꿈꾸는 핸드볼 명문
휘경여고 vs 의정부여고

HANDBALL 100°C

패기로 뚫돌 뭉친 남자대표팀,
기적을 노래할 준비가 끝났다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연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1년 1·2월 제50호



02 신년사

너무나 중요한 도쿄올림픽의 해
핸드볼이 국민적 관심 받는 계기 되길

04 2021 CALENDAR

2021년 주요 대회 일정 및 안내

06 ISSUE

SK(주), 한국스포츠클럽메세나상 수상

08 COVER STAR

“핸드볼, 죽을 때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핸드볼 전설 윤경신

14 통권 50호 특집

10여년 세월, 50호 발행에 이르기까지
<핸드볼코리아> 역사 한 눈에 알아보기

18 KOREA LEAGUE

새 팀 찾은 이적생, 코트 빛낼 신입생

22 NEWYEAR

2021년 새해 주목할 선수들

24 INTERVIEW

“원클럽맨으로 은퇴하고 싶어요”
인천도시공사 센터백 심재복

28 HANDBALL 100°C

패기로 뚝뚝 뭉친 남자대표팀,
기적을 노래할 준비가 끝났다

30 CLUB

국가와 언어 달라도 핸드볼로 소통하는 곳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

32 RIVAL

재도약 꿈꾸는 핸드볼 명문
휘경여고 vs 의정부여고

36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1년 1월 10일 | 통권 50호 | 정보간행물

기획 허재영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E-mail handball_pr@sports.or.kr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너무나 중요한 도쿄올림픽의 해 핸드볼이 국민적 관심 받는 계기 되길



사랑하는 핸드볼 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중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던 리그가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시즌은 조기 종료되었지만, 이번 시즌은 한국 핸드볼을 만끽할 수 있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핸드볼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일부 대회가 취소되고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대 학 및 클럽 대회 경기가 올해부터 뉴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핸드볼이 국내 최초로 이룬 성과이며, 학교 및 클럽 핸드볼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핸드볼 선수들을 포함한 스포츠 선수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유튜브 등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협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물론 SNS를 활용하는 핸드볼 선수가 늘고 있어 핸드볼도 조만간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볼아카데미(HAK)에서 지난해 8월 아시아 14개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핫산 무스타파 IHF 회장도 감사 인사를 보내 줄 정도로 핸드볼 외교의 성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핸드볼 인권보호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를 법무법인을 통해 조사하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핸드볼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핸드볼 선진문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한국 핸드볼을 보면서, 2021년은 협회장으로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해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핸드볼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 서서 두박두박 나아가겠습니다. 핸드볼 가족분들도 저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 미뤄졌지만, 올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올림픽의 해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우리 실력을 평가받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핸드볼이 국가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핸드볼 가족 여러분!

스포츠야 말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핸드볼은 지금까지 이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핸드볼이 가진 작은 자산이라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나누며 사회와 함께 가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핸드볼 가족 및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최 태 원**



다시 찾아온 올림픽의 해

2021년 주요 대회 일정



제27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

01.13~01.31 | 이집트

제19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을 티켓을 따낸 남자 대표팀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은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러시아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이번 대회부터는 출전국을 24개에서 32개로 확대했다. 8개조 각 조 3위까지 결선리그에 올라 결선리그 각조 2위까지 8강에 진출, 이후 8강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한국은 2019년에 남북 단일팀으로 나서 24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1997년대회 8위다.

도쿄올림픽 최종예선(남자)

03.12~03.14 | 노르웨이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2012 런던올림픽 이후 9년 만에 본선 진출을 노린다. 원래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한국은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와 브라질, 칠레와 한 조를 이뤘다. 한국은 여기서 조 2위 안에 들어야만 본선 티켓을 얻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호이다. 브라질은 세계선수권 9위 자격을 얻어 유럽 예선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을 대신해 합류했다. 두 나라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한국이 남미와 유럽의 바람을 잠재우고 9년 만에 올림픽 티켓을 따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021 서울컵 국제핸드볼대회(프리미어4)

7월 |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국 여자 대표팀이 마지막으로 손발을 맞출 무대다. 2019년에는 겨울에 열렸지만 올해 다시 여름에 열린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2021년 대회 참가팀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수그러든다면 많은 국가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한국에서 시차와 문화 등 여러 부분을 적응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최상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대회에는 러시아, 세르비아, 헝가리가 참가했다.

제22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일정 미정 | 루마니아

2019년 레바논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이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에 참가한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는 15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아시아의 강호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일본, 중국, 레바논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나서 유럽 강호와 우열을 가릴 예정이다.

2021 도쿄올림픽

07.23~08.08 | 일본 도쿄

핸드볼 역사상 첫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2019년 말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자신감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유소정(SK슈가글라이더즈), 박새영(경남개발공사) 등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물올랐다. 또한 김온아(인천시청), 류은희(부산시청공단)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올림픽이기에 메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12개국에 주어지는 본선무대 출전권을 확보한 나라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앙골라, 브라질,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까지 6개국이다. 이 외 참가국은 3월 열리는 최종예선을 통해 정해진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10.08~10.14 | 경북 경주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전국체육대회가 다시 찾아온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최근 3년간 남자부는 '리그 최강' 두산이 모두 우승했다. 여자부는 서울시청, 삼척시청, 컬러풀대구가 번갈아가며 우승할 정도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리그 전 초전으로 열릴 전국체전에서 어떤 팀이 우승할지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



2021년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코로나19로 2020 도쿄올림픽은 한해 미뤄져 2021년 7월 열리게 됐다. 여자대표팀은 10년 연속 올림픽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지만, 남자대표팀은 아직 도쿄로 가는 관문이 남아 있다. 그밖에도 코로나19로 숨죽였던 각종 대회가 우리 곁을 찾아와 핸드볼의 갈등을 풀어줄 전망이다. 2021년 각종 대회 일정들을 살펴본다.

2021년 대회 일정(안)

연번	대회 명	기간	장소	주최
1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20.11.27~21.2.28	청주 외	대한핸드볼협회
2	제27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	1.13~31	이집트	국제핸드볼연맹
3	2021 대학통합핸드볼리그	3월~7월(예정)	미정	대한핸드볼협회
4	제9회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U18)	3.1~12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시아핸드볼연맹
5	제5회 아시아여자클럽리그선수권대회	3.3~11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시아핸드볼연맹
6	IHF 올림픽최종예선(남자)	3.12~14	노르웨이	국제핸드볼연맹
7	2021 협회장배전국중고선수권대회	3.19~25	경남 고성	대한핸드볼협회
8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3.20~29	이란 시라즈	아시아핸드볼연맹
9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4월	미정	아시아핸드볼연맹
10	제6회 산아아시아비치경기대회	미정	중국 산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11	제2회 아시아남녀청소년비치핸드볼선수권대회	4.2~9	카타르 도하	아시아핸드볼연맹
12	제76회 전국중별선수권대회	4.19~26	경북 경주	대한핸드볼협회
13	제23회 아시아남자클럽리그선수권대회	5.20~31	사우디 제다	아시아핸드볼연맹
14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28~6.1(예정)	미정	대한체육회
15	제13회 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대회	6.19~20	미정	대한핸드볼협회
16	제23회 세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U21)	6.22~7.3	헝가리	국제핸드볼연맹
17	제8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U18)	미정	크로아티아	국제핸드볼연맹
18	제22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미정	루마니아	국제핸드볼연맹
19	2021 서울컵 국제핸드볼대회(프리미어4)	7월	서울	대한핸드볼협회
20	제16회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7월	미정	아시아핸드볼연맹
21	제1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7.5~12	강원 태백	대한핸드볼협회
22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7.23~8.8	일본 도쿄	국제올림픽위원회
23	제9회 아시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8월	미정	아시아핸드볼연맹
24	제29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8월	일본	대한체육회
25	제9회 세계남자청소년선수권대회	8.18~29	그리스	국제핸드볼연맹
26	2021 핸드볼코리아전국중고선수권대회	9.1~7	경북 김천	대한핸드볼협회
27	제12회 재단이사장배 전국교육대학선수권대회	10월	서울	대한핸드볼협회
28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10.8~14	경북 경주	대한체육회
29	제12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전국대회	10.30~31	서울	대한핸드볼협회
30	제14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초,중,고)	11월	미정	교육과학기술부
31	제24회 아시아남자클럽리그선수권대회	11월	미정	아시아핸드볼연맹
32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1.4~7	서울	대한체육회
33	제3회 아시아유스경기게임	11.20~28	중국 산터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4	2021-2022 핸드볼코리아리그	21년 11월~22년 3월	미정	대한핸드볼협회
35	2021 꿈나무 핸드볼 페스티벌	12월	제주	대한핸드볼협회
36	제5회 김종배 전국꿈나무대회	12.1~6	미정	대한핸드볼협회
37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12.2~19	스페인	국제핸드볼연맹

※ 경기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핸드볼 성장에 공헌 SK(주), 한국스포츠메세나 회장사부문 수상

지난 12월 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사 SK(주)는 초대 회장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SK는 한국 핸드볼의 동반자로 10여 년을 걸어왔다. 그 결과 한국 핸드볼은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핸드볼 걸어가는 길엔 SK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회장사 및 후원사에 관해 공적 기간,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등을 심사해 회장사 3개, 후원사 7개 기업을 선정했다.

SK는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핸드볼 발전 재단 설립 등 핸드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시상식의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SK는 2008년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사를 맡은 이후 12년간 국

내 종목 단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핸드볼 발전을 이끌었다. SK 외에 회장사 부문 수상기업으로는 양궁을 후원해 온 현대자동차와 대한사격연맹 후원사 한화갤러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됐다. SK에서는 길병송 부사장이 대표해 참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상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핸드볼인을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윤경신 감독은 “대한핸드볼협회와 SK의 인연은 2008년부터 시작해 12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핸드볼 역사상 큰 변화와 의미 있는 성장으로 가득했다. SK는 핸드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업이다. 모든 핸드볼인의 꿈이었던 전용경기장 마련으로 행복한 꿈을 펼칠 기회를 줬다. 앞으로도 SK와 대한핸드볼협회가 서로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하길 기원한다”라며 SK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축하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SK와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사인 SK의 핸드볼 사랑은 남다르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동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발전재단을 설립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후원을 꾸준히 해왔다. 한국 핸드볼은 SK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의미 있는 성장을 해왔다.

2011년 모든 핸드볼인들의 꿈이었던 핸드볼경기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안에 세워졌고, 같은 해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출범하며 국내 핸드볼의 틀이 갖춰졌다. 이후 SK는 계열사를 통해 남녀 실업팀을 창단해 선수 수급에도 도움을 줬다. 2012년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SK루브리컨츠)를, 2016년에는 남자부 SK호크스(SK하이닉스)를 창단했다. SK호크스는 2018-2019시즌 리그 최초로 외국인 선수 부크를 영입하며 리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유소년 육성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엘리트와 생활 체육 꿈나무들의 '화합의 장'으로 제주도에서 꿈나무 페스티벌을 열어 어린 학생들이 핸드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또한 2017년부터는 헝가리, 덴마크, 독일 등으로 그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 핸드볼 및 언어, 문화 등을 교류할 수 있는 핸드볼 잠재적 영재 훈련을 시행했다.

핸드볼 대중화를 위해 2021년부터는 국내 스포츠종목 최초로 핸드볼 중·고·대학 등 학교 경기는 물론 스포츠클럽 대회까지 전 경기 생중계를 하며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지원이 탄탄하니 국제대회 성적도 좋았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세계 핸드볼 최초로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1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한다. 또한 2019 세계남자선수권대회에는 남북단일팀으로 출전을 하는 등 스포츠로 하나 되는 위



교 활동으로도 빛을 보았다.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국제핸드볼연맹(IHF)과 한국에 IHF 핸드볼 아카데미 개설 MOU를 체결했으며, 2013년에는 노르웨이핸드볼협회 2019년에는 크로아티아 핸드볼협회와 유럽 선진 시스템 접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했다. 과거 핸드볼은 타 종목에 비해 지원이 떨어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SK가 회장사를 맡고 난 이후 대표팀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훈련 수당은 별도로 지원해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남녀 대표팀 국외 훈련 지원은 물론이고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시에는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 전지 훈련비도 부담했다. 오로지 선수들만을 위해서였다.

최태원 회장은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계선수권 때도 직접 가 현지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응원했다. 지난해 초 열린 제19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도 축전은 물론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다.

근래 들어 기업들이 기부 형태가 아닌 후원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마케팅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추세다. 물론 제약이 따르는 종목과 단체도 있다.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종목단체와 후원 기업의 긍정적인 관계를 알리고 이들의 미담 사례를 알려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종목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보길 바란다.

스포츠 종목이 유지되려면 선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선수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을 맡았다. 그 지원이 없다면 종목의 발전 가능성도 없다. 즉, 그 종목은 팬들에게 관심이 떨어지고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투자가 있어야 발전도 있다. SK와 대한핸드볼협회는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다. 2021년 올림픽도 있고, 세계대회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도 그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핸드볼을 생각한다. 🌐

“핸드볼, 죽을 때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핸드볼코리아> 50호 기념 특별인터뷰

대한민국 핸드볼 전설, 윤경신

<핸드볼코리아>가 어느덧 지령(誌齡) 50호를 맞이했다. 매 호, 표지모델을 선정할 때마다 고민을 거듭해온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50호 기념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표지모델을 선정했다. 50호의 주인공은 한국 핸드볼의 전설 두산 윤경신 감독이다. 그는 13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며 통산 최다 득점, 한 시즌 최다 득점, 리그 득점왕 8회 수상 및 6년 연속 득점왕을 수상했다. 또 아시안게임 5차례 금메달, 올림픽 5회 출전, 올림픽 득점왕, 세계선수권대회 득점왕 2회 수상, 국제핸드볼연맹 올해의 선수상까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 윤경신 감독은 두산을 다섯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며 지도자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에게서 지금까지 걸어온 핸드볼 인생을 들어봤다. 윤경신 감독은 선수, 감독으로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아버지-남편으로서는 뺑뺑이라고 자평했다.



독일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윤경신은 없었다

Q. 윤경신 감독님 반갑습니다. <핸드볼코리아> 50호 기념 표지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핸드볼코리아>를 보면서 그전보다 퀄리티도 좋아졌기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50호라는 기념비적인 호에 제가 선정이 되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Q.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인천도시공사와 개막전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다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에요. 비시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할 여유도 없었어요. 현재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죠.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관리를 잘 해야죠.

사실 인천도시공사에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죠(웃음). 근데 장난이 아니고 우리 선수들의 훈련량이 정말 없었어요. 시즌 전 미디어데이에서도 언급했지만 올 시즌 승률을 7할, 8할로 생각했던 게 훈련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몇 경기는 편하게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우려했던 부분이 첫 경기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Q.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감독님의 선수 시절을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선수였다고 보나요.

선수 때는 승부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신장이 있다 보니 스피드가 느렸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외국 나가서도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리고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대중교통 타기도 힘들고, 옷 입기도 힘들었고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았어요. 코트 위에서는 안 그랬는데, 코트 밖에서는 소심했죠. 그러다 이르면 안 되겠다 싶어 조금씩 마음을 바꿔 먹으려고 했어요.

Q. 경희대 졸업 후 바로 독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 독일에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았다면 지금의 윤경신은 있었을까요.

제가 2012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2012년까지 못 하고 그전에 은퇴를 했을 거예요. 한국은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계속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이 지쳤을 것 같아요. 지도자나 대학교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Q. 당시 독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도 받았나요.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나라 독일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청소년 대표팀에 나가서 독일 팀과 붙어봐도 독일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택했죠.

Q. 독일에 있으면서 편견 혹은 차별은 없었나요.

너무 많았죠. 그때는 한국에 대한 위상이 전혀 없었어요. 길 가다 저를

보고 일본인 혹은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다 1998년, 1999년도부터 핸드볼로 입지를 다지고나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어도 트이고, 실력도 좋아지고 하니 한국에 대한 위상도 높아졌죠. 그리고 경기장에 태극기를 들고 온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다고 봐요.

Q. 머나먼 독일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도움을 줬어요. 식사와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줬죠. 나중에는 독일어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독하게 했어요. 독일 VfL Gummersbach를 택한 이유가 쾰른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대학원을 관두고 팀 운동에만 집중했죠.

Q. 감독님 하면 파워풀한 득점력이 인상이 남습니다. 독일리그에서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이 있다면요.

아직도 2000-2001시즌에 기록한 324득점이 단일 시즌 최다 득점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8.5골 이상은 매 경기 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이 남네요. 몸도 좋았고, 선수들과 합도 좋았고요. 그 때 핸드볼이 재밌었어요.

Q.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년 리그 생활하면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못 해본 게 한이죠. 대부분의 컵대회는 우승 경험이 있거든요. Gummersbach에 있을 때나, 함부르크에 있을 때나 리그에서는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위가 최고 성적이었죠.

Q. 한국으로 간다 했을 때 함부르크 팬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독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사실 독일에서 2~3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재준(아들)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었죠.

Q. 한국에 와서는 두산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경희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모두 진행했다고요.

두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핸드볼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 꿈이 대학 강단에 서는 게 꿈이었어요. 경희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진행했죠. 이후 교수 문을 두드렸는데 현역 감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Q. 감독님께서 국가대표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2006 도하 아시안게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힘들었어요(당시 한국은 중동의 편파 판정을 이기지 못하고 준결승전에서 카타르에 28-40으로 패했다). 또한 일본과 재경기를 통해 2008 베이징올림픽 티켓을 얻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독일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요.

Q. 그 시절 국가대표 생활은 어땠나요. 많이 열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악했죠. 지원이나 관심도 그렇고 포상금 제도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윤경신 감독

생년월일

1973. 07. 07

출신교

고려대사대부고-경희대

소속

두산 감독

주요경력

1996~2006 VTB 굼머스바흐

2006~2008 HSV 함부르크

2008~2011 두산

2013~ 두산 감독

있지 않아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훈련은 훈련대로 하는데, 지원은 안 되니 많이 힘들어했죠. 성적이 좋았는데도 이렇다 할 지원이 시원찮으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도 여파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Q.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한국에서 대표팀 생활을 한 것도 색다른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하남시청 백원철 감독대행, SK슈가글라이더즈 박성립 감독, SK호크스 황보성일 감독 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태릉 선수촌에 오면 모두 적응을 못 하고 힘들어했죠. 한국은 일반적으로 훈련량이 많아요. 하루에 3~4번 훈련을 하다 보니 힘들었죠. 한국에서 뛰던 선수들은 이게 익숙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외국은 자유롭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색달랐던 것 같아요.

Q. 혹시 국가대표 생활하면서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2012년도에 열렸던 런던올림픽이 지금도 아쉬워요. 그때는 소속팀 없이 대표팀 플레잉코치로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죠. 런던에서 끝맺음이 아쉬워요.

감독으로선 아직 75점

다이나믹한 핸드볼 보여주고파

Q.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감독이 됐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2012년 대표팀 플레잉 코치가 끝나고 나서 경희대에 가서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다 2013년 1월에 콜이 왔죠.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감독 경력도 없었는데, 그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했죠. 감독을 한지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네요.

Q. 감독으로서 첫 경기는 어땠는지 기억에 나나요.

2013년 데뷔전은 이겼던 것 같아요(두산은 리그 개막전에서 충남체육회(現 충남도청)에 21-18로 승리했다). 당시 개막 다섯 경기에서 2승 3패인가를 기록한 걸로 기억하는데 두산치고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국, 중국, 일본 클럽들이 모여 진행한 동아시아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조금씩 팀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죠.

Q. 감독 생활을 돌아봤을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정의경입니다. 정의경은 어떤 선수인가요.

의경이랑은 선수 생활도 같이 해본 적 있는데, 이제는 후배에서 제자

가 됐네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이 무엇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알고 해결하는 선수죠. 감독으로서 는 보배 같은 선수예요. 아직까지도 두산 키플레이어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또한 다른 선수들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대선수라고 생각해요.

Q. 정의경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꾸준함의 대명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꾸준합니다.

의경이는 조용하면서 꾸준해요. 몸 관리도 잘 하고, 성실하고,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게 지금의 정의경을 만들었어요. 후배들에게도 함부로 안 해요. 술선수범하죠. 그 선수는 정말 대선수예요.

Q. 박찬영 역시 두산하면 떠오르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요. 특히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죠. 베테랑 선수들이 잘 하니까 동생들도 잘 따라오는 거예요. ‘두산은 이제 약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5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건재해요.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베테랑의 장점을 흡수하고 그게 두산의 장점이에요. 물론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은 해가 지날수록 떨어질지 몰라도, 기량만큼은 아직도 출중해요.

Q.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썼어요.

후보 선수들을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후보 선수들의 마음을 겪어보고, 알아야 그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잘 했던 선수가 은퇴 후 감독이 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해요. 어떤

선수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꿰차고 봐야 해요. 뭐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파악해야 해요.

Q. 감독으로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75점? 25점을 더 채워야 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은데, 선수들을 아우르는 장악력이나 경기장에서 의 임기응변, 대처능력이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감독 생활을 7~8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과제죠.

Q. 감독님만의 멘탈 관리법도 궁금합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선수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을 나무라기 전에 스스로를 혼내요. 내가 잘 모르고 못 하는데 제자들에게 시킨다? 말이 안 되죠. 저부터 채찍질을 하고, 선수들에게 이 야기를 해요. 그래야 선수들이 잘 따라오죠. 경기에서 졌을 때도 호통을 치는 편이 아니에요. 감독인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항상 파악해요.

Q. 감독님이 노력하고 있는 덕분에 두산 천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팀들은 매 시즌 ‘두산 타도’를 외치고 있고요.

2015년, 2016년만 하더라도 ‘타도 두산’ 이런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팀이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승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선수들에게 ‘즐거보자’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올 시즌 개막전도 패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선수들도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감을 즐기려 해요.

Q. 윤경신 감독이 꿈꾸는 핸드볼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유럽 핸드볼을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이내믹하고 박진감, 스



피드 넘치는 핸드볼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두산 핸드볼이예요. 물론 선수층이 얇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사랑 상의하면서 보완해야죠. 하지만 느리고 편하게 하는 핸드볼보다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줘야 팬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제는 남편, 아빠의 역할에도 충실 그리고 한국 핸드볼 발전에 이바지

Q. 결혼한지 20년이 지났네요.

199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 1998년도에 약혼식을 했고, 1999년도에 결혼식을 했어요. 독일에서도 팬들과 웨딩파티를 했죠. 한 400~500명 왔을 거예요. 많이 왔죠?(웃음) 와이프는 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故 앙드레킴 디자이너와도 함께 일을 한 적이 있고요. 독일에서 함께 지내며 간간이 일이 있을 때는 한국으로 넘어가 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혼자 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홈이면 모를까 제가 원정에 갈 때는 며칠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아내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오기도 해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을 1~2년 앞당겼죠.

Q. 아들과는 많이 친하나요.

아내 혼자 키우려니 많이 힘들어했죠. 처음에는 놀아주지도 못하다가 지금 친해지려니 어색하죠. 아직도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사춘기가 왔어요. 저를 피하려고 해요. 안타깝죠.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그때는 운동에만 집중하느라 그러지 못한 게 아쉽죠.

Q. 평소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 편인가요.

아들은 저랑 비슷해요. 내성적이에요. 또래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분야를 같이 공유하면 더 친해질 수 있다고 봐요. 아들이 컴퓨터 게임할 때 가서 일부러 한마디라도 더 걸고 하죠. 그래도 친구들끼리 낱길대며 게임하다가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어색해요. 아빠와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어색한 것 같아요.

Q. 한국 남자 핸드볼이 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전설로서 속상함이 클 듯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아요. 1~2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을 짜고, 어린 선수들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죠. 장기 플랜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죠. 다른 종목에 자원을 뺏기는 게 사실이에요. 운동 신경이 있는 선수들은 핸드볼을 하다 모두 다른 종목으로 전향을 하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야 됩니다.

Q. JTBC GOLF&SPORTS 주관 방송사가 들어선 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좋아요. 모르는 분들도 핸드볼의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핸드볼을 계속 알려야 돼요. 그리고 스타 선수들 발굴도 시급해요. 저

나 임오경 국회의원도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현역 선수들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해요. 선수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해요.

Q. 남자 선수 중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요.

우리 팀에서는 하무경이나 이한솔이 있죠. 다른 팀으로 보면 충남도 청 오황제도 있고요. 선수들이 얼른 자신을 홍보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언제까지 핸드볼과 인연을 맺고 싶나요.

본업이 핸드볼이잖아요. 핸드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죽을 때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단에 서서 핸드볼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요. 핸드볼의 일원으로서 한국 핸드볼 발전을 위해 도와주고 싶어요.

Q. 10년 후 윤경신 감독은 뭘 하고 있을까요.

50대 후반인데 그때도 핸드볼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감독을 할지, 행정가로 접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핸드볼을 꼭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올 시즌 목표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에게 계속 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올 시즌은 부상 없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규리그 우승은 바라지도 않아요. 챔피언결정전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정규리그에서는 패하더라도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과감히 빼려고 합니다.

Q. 두산의 라이벌은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나요.

SK호크스죠. 선수 보강도 잘 됐고 지원도 좋고요. 우리의 라이벌로 계속 부르는데, 선수들 역시 SK호크스랑 하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라이벌 의식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핸드볼 인기가 많아지려면 라이벌 구도가 많이 만들어져야 해요. 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있지만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Q.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땠나요.

편하게 했어요. 오랜만에 선수 시절 이야기를 하니 추억에 젖었네요.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방향성을 잡아준 고마운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Q. 선수들에게 어떤 감동으로 남고 싶나요.

선수들과 소통하는 감독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선수들이 '윤경신 감독님은 힘들고 화를 내더라도 우리와 잘 통했다.' '요소, 요소를 잘 잡아 주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리그 들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니 와이프랑 아들 재준이가 더 좋아해요. 방에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지가 되는 가장이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보다는 와이프와 아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



통권 50호 특집

10여년 세월, 50호 발행에 이르기까지 <핸드볼코리아>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보기

<핸드볼코리아>가 어느덧 지령(誌齡) 50호를 맞이했다.

매번 기획회의를 할 때면 어떤 인물을 선정해 인터뷰를 해야 할지,
어떤 기획 기사를 담아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렇게 만든 책이 50권이다. <핸드볼코리아>를 숫자로 돌아보고,
그 외 핸드볼을 빛내는 사람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모든 기록은 1월 5일 기준)



영광의 '1'호

<핸드볼코리아> 영광의 '1'호는 2010년 7월 1일 발간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최태원 회장의 창간사를 비롯해 하산 무스타파 국제핸드볼연맹 회장과 국내 스포츠인들이 <핸드볼코리아>의 창간을 축하했다. 당시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여자주니어대표팀의 생생한 훈련 현장도 담겼다. 지금은 어엿한 베테랑이 된 부산시설공단 이미경-류은희, SK슈가글라이더즈 최수민, 컬러풀대구 조효비(개명 후 조하람)의 풋풋한 모습이 옛 추억을 상기시켰다.

영광의 창간호에서 <우생순>의 주역 우선희, '코트 위의 훈남' 정의경, 배우 김정음이 인터뷰 대상자로 나와 지면을 빛냈다. 김정은은 당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열연과 함께 핸드볼발전재단 이사로 활약한 바 있다. 우선희는 은퇴 후 현재 지도자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정의경은 여전히 두산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어느덧 37세, 복록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실력이 녹슬지 않는다. 윤경신 감독은 정의경이 여전히 두산의 키플레이어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존재감을 발휘 중이다.

'아빠와 아들, 핸드볼 3남매' 가족 출연은 '3'회

동시대에 한 가족이 핸드볼 코트를 누비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50호를 돌아보면 <핸드볼코리아>를 빛낸 가족은 누가 있었을까. 먼저 2호에 실린 이성호 감독-이재용 부자가 있다. 당시 이성호 감독은 휘경여중 핸드볼팀 감독을 맡고 있었으며, 이재용은 핸드볼 명문인 하남 동부초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두 부자는 인터뷰 내내 친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 이성호 감독은 지금도 휘경여중 체육 교사이자 핸드볼부 감독을 맡고 있다. 이재용은 강원대 졸업 후 핸드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3호에 실린 김만호-김연우-김연빈 3부자가 있다. 김만호 감독은 경희대 핸드볼팀을 이끌고 있다. 첫째 아들 김연우와 둘째 아들 김연빈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핸드볼의 길을 걸었다. 두 선수 모두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로 진학해 핸드볼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김연우는 대학 졸업 후 실업 지명을 받지 못한 반면, 김연빈은 2019-2020시즌에 두산의 선택을 받았다. 김연빈은 지난 시즌 종료 후 곧바로 군 입대를 택했다. 현재 김연빈은 상무피닉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한동안 가족 인터뷰는 뜸했다. 그러다 지난 26호에 부자 인터뷰가 아닌 남매 인터뷰가 처음 실렸다. 바로 김태규-김아영-김태웅 삼 남매가 주인공이다. 장남 김태규가 육상에서 핸드볼로 전향하자 둘째 김아영과 막내 김태웅 역시 자연스럽게 핸드볼을 접하게 되었다. 김태규는 원광대 졸업 후 SK호크스에서 실업 무대를 데뷔했으며, 현재 상무피닉스 소속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아영은 컬러풀대구의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현재 리그 5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올라 있다. 득점에도 일가견이 있다. 조하람(59득점)과 함께 팀 내 쌍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44득점을 기록 중이다. 김태웅은 형의 뒤를 이어 원광대로 진학했으며, 8월에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도 맹활약하며 원광대에 우승컵을 안긴 바 있다.



2호

이성호 감독-이재용 부자

이성호 감독은 휘경여중 핸드볼팀 감독을 맡고 있었으며, 이재용은 핸드볼 명문인 하남 동부초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두 부자는 인터뷰 내내 친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 이성호 감독은 지금도 휘경여중 체육 교사이자 핸드볼부 감독을 맡고 있다. 이재용은 강원대 졸업 후 핸드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3호



3호

김만호 감독-김연우-김연빈 3부자

김만호 감독은 경희대 핸드볼팀을 이끌고 있다. 첫째 아들 김연우와 둘째 아들 김연빈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핸드볼의 길을 걸었다. 두 선수 모두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로 진학해 핸드볼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김연우는 대학 졸업 후 실업 지명을 받지 못한 반면, 김연빈은 2019-2020시즌에 두산의 선택을 받았다. 김연빈은 지난 시즌 종료 후 곧바로 군 입대를 택했다. 현재 김연빈은 상무피닉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6호

김태규-김아영-김태웅 삼 남매

장남 김태규가 육상에서 핸드볼로 전향하자 둘째 김아영과 막내 김태웅 역시 자연스럽게 핸드볼을 접하게 되었다. 김태규는 원광대 졸업 후 SK호크스에서 실업 무대를 데뷔했으며, 현재 상무피닉스 소속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아영은 컬러풀대구의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현재 리그 5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올라 있다. 득점에도 일가견이 있다. 조하람(59득점)과 함께 팀 내 쌍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44득점을 기록 중이다. 김태웅은 형의 뒤를 이어 원광대로 진학했으며, 8월에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도 맹활약하며 원광대에 우승컵을 안긴 바 있다.

역시 대스타 정의경, 김은아

각각 '5'회, '4'회로 남녀부 선수 중 최다 출연

<핸드볼코리아>에 실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매해 핸드볼계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인물들이 주로 실린다. 50호 발행에 이르기까지 <핸드볼코리아>에 가장 많이 실린 선수는 누구일까.

바로 정의경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의경은 창간호에도 실린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네 번이나 더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정의경이 왜 가장 많이 실렸는지 고개를 끄덕일 만도 하다. 대학 졸업 후 줄곧 뛰고 있는 두산에서 활약도 좋았고, 매해 대표팀에서 활약도 핸드볼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지금도 정의경은 두산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정의경은 컬러풀대구 정유라와 함께 35호 표지 모델을 장식하기도 했다.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실린 선수는 김은아다. 김은아는 고교 졸업 후부터 줄곧 소속팀을 비롯해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정의경과 비슷한 케이스다. 김은아는 5호, 6호, 15호, 30호까지 총 4번 실렸다.



의미가 담겨 있는

'6'호 '21'호

물론 매 호가 의미가 담겨 있는 호이지만 6호와 21호는 뭔가 더 특별하다. 먼저 6호는 핸드볼인들의 숙원이었던 SK핸드볼경기장 준공 특집호로 꾸며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SK핸드볼경기장은 핸드볼의 본격 도약을 위해서라면 꼭 만들어져야 했던 전용경기장이었다. 이로 인해 핸드볼코리아리그의 운영에 더 탄력을 받게 됐고, 핸드볼의 저변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1호는 SK호크스 남자핸드볼팀 창단을 중점으로 꾸며졌다. 당시 SK호크스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SK호크스는 2016년 2월 29일 창단한 신생팀으로 남자핸드볼의 저변확대와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창단 감독은 오세일 감독(現 광주도시공사 감독)이 맡았으며, 15명의 선수단으로 창단을 선언했다. 지금도 SK호크스를 지키고 있는 창단 멤버로는 김양욱, 유범준이 있으며 창단 코치로 왔던 황보성일 감독이 현재 SK호크스를 이끌고 있다. 매 시즌 두산의 라이벌로 활약하며 핸드볼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커플 표지는 '5'회

선수로만 한정했을 때 커플 표지는 총 5회를 장식했다. 34호에 두산 박찬영-삼척시청 박미라, 베테랑 골키퍼들이 장식했다. 어색한 웃음이 인상 깊다. 두산 정의경-컬러풀대구 정유라가 35호 표지를 장식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가기 전 남녀대표팀 주축 선수로서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남시청 박광순과 경남개발공사 박새영이 42호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촬영은 2020년 8월에 진천선수촌에서 진행했다. 박광순과 박새영은 남녀 국가대표팀 일원으로서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전을 준비 중이었다.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티켓을 따냈으나, 남자 대표팀은 획득에 실패했다. 현재 남자 대표팀은 오는 3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다. 45호는 당시 득점 관련 대기록을 쓴 정수영(일본 다이도스틸)-권한나(부산시설공단)가 장식했으며, 46호는 차세대 스타의 의미를 담아 조수연(SK슈가글라이더즈)과 정진호가 표지를 빛낸 바 있다. 🌐



핸드볼코리아를 빛낸 선수 외 인물들

22호 리그 최초 여성

심판 이은하-이가을

2016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최초의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이은하, 이가을 심판은 당시 남성들의 전



유물로만 느껴졌던 핸드볼 심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지금도 두 심판은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누비고 있으며, 국제심판 커플로 활약하고 있다.

42호 핸드볼 서포터즈 이장성

어느 종목에나 팬이 없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핸드볼 역시 마찬가지다. 핸드볼 국가대표 서포터즈, 'H팬's'가 있다. 42호에는 핸드볼 사랑이 가득한 서포터즈 이장성 씨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이장성씨는



“예전부터 핸드볼을 좋아했다. 손에서 나오는 파워, 패싱에 의한 스피드가 매력적이다”라며 “핸드볼은 정말 팬 서비스가 좋다. 경기 끝나고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선수들은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핸드볼 ‘찐 팬’의 면모를 보여줬다. 좋아하는 선수는 두산 정의경, 부산시설공단 류은희를 꼽았다.

46호 ‘핸드볼계 펭수’

콘파카

‘핸드볼계 마스크’ 콘파카는 어느덧 핸드볼 팬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성장했다. 콘파카



는 어린 시절 가요계의 루키가 되고 싶어 남미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운명에 흐르는 핸드볼에 대한 사랑과 피를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핸드볼 알리의 길로 뛰어들었다. 비록 올 시즌에는 ‘하이 핸드볼’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핸드볼을 알리고 있다.

콘파카는 언제나 핸드볼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리지널 디지털 예능 프로그램 서바이벌 콘텐츠 ‘내 꿈은 라이언’에 출연해 핸드볼을 알린 바 있다.



김은아

역대급 이적시장 새 팀 찾은 이적생, 코트 빛낼 신입생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남자부는 두산 외 SK호크스, 인천도시공사, 하남시청, 상무피닉스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여자부도 부산시설공단-삼척시청-SK슈가글라이더즈가 형성한 3강 체제가 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치열한 순위 싸움에 불을 지퍼줄 선수들이 등장한다. 바로 이적 선수들과 신입 선수들이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1년 신축년을 빛낼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모든 기록은 1월 5일 기준.)

김보은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김은아

CB 김은아 (SK슈가글라이더즈 → 인천시청)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스타 김은아가 친정으로 돌아왔다. 김은아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 계약이 만료됐고, 새 팀으로 인천시청을 택했다. 김은아는 인천시청(前 인천체육회)이 낯설지 않다. 김은아는 실업 무대 데뷔 이후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천시청에서 뛴 바 있다. 이후 5년간은 SK슈가글라이더즈에서 뛰었다.

김은아는 인천시청의 전성기를 펼친 인물이다. 2011년과 2014년, 2017년 핸드볼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정규리그 MVP와 득점상, 어시스트상 등 개인상을 휩쓸었다.

인천시청에서 쌓은 경력이 화려하다. 2008 베이징올림픽부터 시작해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까지 세 차례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다. 또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잇달아 금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김은아는 최근 부상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건강한 김은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다. 몸 상태만 좋다면 인천시청에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아직 리그에서 1승 밖에 거두지 못한 인천시청은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결정적인 전력 보강을 이뤄냈다. 김은아의 합류는 그야말로 선수들에게도 큰 축복이다. 팀내 최다 득점자인 레프트윙 신은주와 굿은일을 하는 김희진은 매 경기 체력 소비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옆에 천군만마 같은 존재가 왔다.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또한 팀의 미래로 뽑히는 김한령도 대선배를 옆에서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인천시청은 또한 서울시청에서 피봇 김선해도 영입하며 중앙 라인을 확실히 보강했다. 김선해는 서울시청에서 온갖 굿은일을 했다. 득점도 30득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서는 한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김은아와 함께 인천시청의 언니 라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의 새로운 도전

PV 김보은 (경남개발공사 → 삼척시청)

경남개발공사 주축선수로 활약한 김보은이 정든 경남개발공사를 떠나 삼척시청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경남개발공사는 한 명의 프랜차이즈를 잃었지만 삼척시청은 한 명의 즉시 전력감을 얻었다. 김보은은 불혹에 다다른 유현지의 대체자원으로 손색없는 평을 받는다. 송지은과 함께 꾸릴 중앙 라인에 벌써부터 타팀들은 견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보은은 또한 피봇뿐만 아니라 레프트윙도 소화 가능하다는 게 매력적이다.

김보은은 태백 황지정보산업고 재학 시절 핸드볼대회 전관왕을 휩쓸은 주역으로 2016 신인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경남개발공사에 지명을 받았다. 중 3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 2015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한국의 13회 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비록 경남개발공사의 팀 성적은 저조했지만, 김보은은 꾸준히 제 몫을 했다. 이번 시즌에도 44골 10어시스트 6블록슛을 기록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뛴 12월 28일 서울시청전에서도 9골을 폭발시키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마무리가 화려했다.

이제 김보은은 삼척시청을 위해 뛴다. 삼척시청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탄탄한 팀이다. 거기에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겸비한 김보은까지 합류했다. 더욱 활기를 띠고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급 원어의 새 출발

최수민 (서울시청 → SK슈가글라이더즈)

김은아와 함께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힌 선수다. 175cm, 60kg의 신체조건을 갖춘 최수민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도 참가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대한핸드볼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최수민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도 최수민의 활약은 빛났다. 2016시즌에는 권한나(부산시설공단)와 힘을 합쳐 서울시청의 창단 첫 우승을 안겼다. 리그에서 BEST7에 다섯 번 뽑혔을 정도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다. 공격 때는 레프트윙, 수비 시에는 왼쪽뿐만 아니라 중앙도 커버가 가능한 선수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김은아, 용세라 등 베테랑과 작별하고 리빌딩에 들어갔다. 팀의 중심을 잡을 선수도 필요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최수민이다. 큰 키와 뛰어난 점프력을 바탕으로 높은 타점을 자랑한다. 사이드에서 구사하는 스판슛이 전매특하다.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골키퍼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최수민은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묵묵히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최수민은 김선화, 최수지, 조수연, 유소정 등과 함께 SK슈가글라이더즈 대표 라인업에 합류했다. 이미 1월 첫째주 시리즈에 나와 팀에 적응 중이다. 최수민이 다시 한번 SK슈가글라이더즈에서 불꽃을 태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그 외 선수들의 이적 소식은?

위에서 언급한 세 선수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겼다. 부산시설공단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김진이를 영입했다. 광주도시공사도 손민지를 데려왔고, 경남개발공사와 1대 1 트레이드를 통해 최지혜를 내주는 대신 정현희를 손에 넣었다. 영입이 가장 활발했던 팀은 서울시청이다. 서울시청은 손민지, 강다혜, 김선해, 최수민, 김이슬 등 베테랑 선수들이 나간 공백을 박하얀, 김리안(이상 경남개발공사), 조아람(SK슈가글라이더즈), 노지훈(부산시설공단)으로 메웠다. 경남개발공사 역시 강다혜, 김이슬(이상 서울시청), 한다슬을 영입했다. 특히 한다슬은 은퇴 후 다시 돌아오는 선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새로운 이적생들이 팀에 어떻게 기여 할지 기대를 모은다.

#신인

1순위 위엄을 보여주겠다

PV 김소라(한국체대 졸업 →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1순위로 국가대표 피봇 기대주 김소라를 지명했다. 김소라는 이미 강은혜(부산시설공단)와 함께 한국 여자 피봇계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평가받는 선수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모두 잘 한다. 힘과 파워를 겸비해 몸싸움 치열한 피봇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다. 180cm의 큰 신장에 스피드도 준수하다. 높은 곳에서 내리꽂는 슈팅이 장점인데, 스피드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갖춰 상대 골키퍼들이 막는 데 애를 먹는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 김소라의 합류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기존에 팀의 피봇 자리를 지킨 김보은이 FA 자격을 얻어 삼척시청으로 떠났다. 하지만 김소라가 합류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우는 데 성공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실상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



김소라

다. 골키퍼 박새영, 레프트백 허유진을 제외하곤 2021년 1월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주전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라는 지명 후 가진 <핸드볼코리아>와 인터뷰에서 “1순위로써 잘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담감 때문에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겠다. 신인왕 생각은 접어두고 팀 성적만 신경 쓰겠다. 다른 팀에 비해 연령이 젊은 팀이다.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아직까지 포스트시즌 진출 경험이 없다. 신인 최대어 김소라와 함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슈가글라이더즈 새로운 수문장

GK 김수연(한국체대 졸업 → SK슈가글라이더즈)

김수연은 이미 박새영(경남개발공사)과 함께 한국 여자대표팀 골문을 책임진 경험이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출전 경험도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하다.

182cm 큰 신장을 갖고 있는 김수연은 일대일 슈팅 방어가 능하고, 침착성을 가졌다는 게 장점이다. 김수연은 매 경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팀이 지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자신만의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간다.

김수연이 뛸 팀은 SK슈가글라이더즈다. 다행히 적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대표에서 손발을 맞춰본 유소정, 조수연, 최수지 등이 있다.



김수연



신재섭



이요섭

하지만 김수연 역시 주전 경쟁은 해야 된다. 나이는 두 살 어리지만 언차로는 선배인 이민지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부터 용세라를 대신해 주전 수문장으로 자리 잡은 이민지는 세이브 3위에 오르며 SK슈가글라이더즈가 순항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번갈아가며 골문을 맡을 수 있다. 김수연의 데뷔 시즌은 어떻게 흘러갈까.

하남시청의 새로운 NO.3

RB 신재섭(원광대 졸업-> 하남시청)

이번 남자부 신인 선수 중 알짜배기 자원이라는 평을 받는 신재섭. 슈팅, 득점력, 볼 스피드 등 라이트백이 가져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로 평가받는다. 신재섭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선수다.

원광대 4학년 팀 주장 시절에는 팀을 제17회 태백산기종합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끌고 동시에 MVP를 수상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팀을 하나로 모은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휘했다. 보완점으로는 센스, 어시스트 능력, 피봇과의 연결 플레이가 뽑힌다.

신재섭은 데뷔 시리즈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데뷔전인 SK호크스전에서는 팀은 패했으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60분)을 소화하고, 가장 많은 득점(9점)을 올렸다. 충남도청전에서는 8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경기 MVP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남시청은 박광순 외 또 한 명의 득점 기계가 생겼다. 신재섭이 하남시청을 포스트시즌 무대로 이끌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도 손안에 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차세대 센터백의 첫 시즌

CB 이요섭 (경희대 졸업-> 인천도시공사)

남자부 신인 중 최대어로 꼽힌 이요섭은 인천도시공사 옷을 입었다. 이요섭은 지난해 제22회 세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고, 2019년 대학핸드볼통합리그에서는 득점(88점)과 어시스트(40어시스트) 모두 1위를 기록한 수준급 기량을 가진 선수다.

이요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2020 대학통합선수권대회 한국체대와 결승전에서도 7골을 폭발하며 팀에 마지막 우승을 안기고 화려하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요섭은 굉장히 빠르다. 최근 추세인 속공 핸드볼에 딱 맞는 선수다. 또 한 스텝이 빠르고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의 혼을 빼놓는다. 그래도 곧바로 주전을 차지하기는 이르다. 주장 심재복이 버티고 있고, 그 뒤를 박동현, 이학범이 버티고 있다. 당분간은 로테이션 자원으로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시절 보여준 활발한 플레이가 실업무대에서도 나올지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다. ⚽



“내가 소띠 해 주인공” 2021년 새해 주목할 선수들

Happy New Year! 2021년이 밝았다. 2021년 올해는 육십간지 중 38번째 조 천간(天干)이 ‘신(辛)’이고, 지지(地支)가 ‘축(丑)’인 해인 신축년이다. ‘신’이 흰색을 의미하고 ‘축’이 소를 뜻한다. 흰 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여러 방면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성실한 흰 소처럼 2021년을 빛낼 소띠 스타는 누가 있을까. (모든 기록은 1월 5일 기준)



남자부

하남시청

박재용

남자부 대표적인 소띠 스타로는 하남시청의 수문장 박재용이 있다. 박재용은 2020년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하남시청에 입단했다. 이미 대성고-한국체대 시절부터 한국 남자 대표팀 골키퍼 계보를 이어갈 선수로 평가받았던 박재용. 그는 데뷔 시즌인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부터 하남시청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19-2020 시즌 2라운드 두산전에서 16세이브를 기록하며 두산의 31연승을

저지했다. 박재용은 서울시청 우빛나와 함께 리그 신인왕도 수상했다.

올 시즌에도 박재용의 활약은 번뜩인다. 팀이 치른 12경기에 모두 출전해 146세이브, 방어율 39.14%를 기록하고 있다. 세이브는 1위이며, 방어율은 3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박재용의 활약 덕분에 하남시청도 SK호크스,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박재용은 올 시즌 하남시청의 첫 포스트시즌에 일조할 수 있을까. 신축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상무피닉스

김동욱

하남시청 박재용과 함께 남자 핸드볼을 이끌어 갈 상무피닉스 골키퍼 김동욱의 2021년도 기대된다. 김동욱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윤경신 감독의 부름을 받고 2020년 두산에 입단했다. 결출한 실력을 가진 박찬영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박찬영은 “동욱이는 신장이 좋다. 상무 피닉스 전역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욱은 데뷔 시즌이 끝나자마자 절친 김연빈과 함께 상무피닉스로 떠났다. 일찌감치 군문제를 해결한 뒤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한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본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이브 3위(123세이브), 방어율 6위(34.17%)에 올라 있다. 상무피닉스가 올 시즌 인천도시공사, SK호크스 등 상위권 팀을 잡으며 다크호스로 활약하고 있는데 김동욱의 선방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상무피닉스에서 경기 경험을 쌓고 돌아와 두산의 미래가 되고 싶은 남자 김동욱. 김동욱의 2021년을 기대해보자.

여자부

인천시청

김성은

푹푹한 신예의 티를 벗고 인천시청 주축으로 자리 잡은 김성은이 여자부 소피 스타다. 김성은은 인천비즈니스고를 졸업하고 2015 여자 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인천시청에 지명을 받았고, 그 이후 꼭 인천시청에서 뛰고 있다.

김성은은 2016시즌에 생애 첫 All-Star TEAM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 시즌 팀 성적은 7위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에서 신은주

와 함께 중흥무진 활약했다. 55득점 1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All-Star TEAM 라이트윙에 이름을 올렸다. 날렵한 몸놀림과 함께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 혼을 빼놓은 선수가 김성은이다.

하지만 올 시즌은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팀 역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김성은이 올라와야 인천시청도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자신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김성은이 다시 반등할지 기대를 모은다.

삼척시청

김보은

김보은은 경남개발공사가 아닌 삼척시청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를 누빌 것이다. 정든 경남개발공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이계청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삼척시청으로 적을 옮겼다.

김보은은 태백 황지정보산업고 재학 시절 핸드볼대회 전관왕을 휩쓴 주역으로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경남개발공사에 지명을 받았다. 주포지션은 피봇이지만 레프트윙도 될 수 있다. 174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힘이 넘치는 플레이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간 부족하다고 평가되던 유연성도 좋아졌다. 2016년 신인왕은 당연히 그녀의 것이었다.

지난 시즌 경남개발공사는 허유진과 더불어 김보은의 활약에 창단 후 최고 성적인 6승-리그 5위로 시즌을 마쳤다. 김보은은 77득점(득점 5위), 17어시스트, 13스틸(스틸 2위)을 기록했다. 올 시즌 무릎 부상에 돌고돌고 삼척시청으로 가기 전까지 고군분투했다. 이제는 삼척시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김보은의 2021년을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

그 외 소피 스타로는 충남도청 김민재, 상무피닉스 김연빈, 부산시청 공단 정가희가 있다. 🏐

김성은



김보은



〰
리그
첫 우승한 뒤
원클럽맨으로
은퇴하고
싶어요
〰

인천도시공사
센터백 심재복



심재복은 11년간 인천도시공사를 지켜왔다. 그는 또 국가대표로서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며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쌓아왔다. 그렇다고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질적인 어깨 부상으로 세 차례 수술대에 오르면서 은퇴 기로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핸드볼을 향한 미련이 그를 더 강하게 채찍질 했다. 부상을 딛고 다시 코트에서 빛 볼 날을 기다렸다. 이를 위해 스스로 조연을 자처했다. 결국 그는 멋지게 부활했다. 어느덧 그도 선수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할 나이가 됐다. 심재복은 새해를 앞두고 <핸드볼코리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도시공사 멤버들과 함께 리그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원클럽맨으로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Q. 코로나 2.5단계로 인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단체 훈련도 제한되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스케줄이 꼬이면서 선수들도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 모든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기약이 없는 이 사태에 우리도 조금은 지친다.

Q.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핸드볼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농구 같은 구기 종목에 재능이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운동 신경이 좋았던 것 같다. 핸드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살 위에 친형이 먼저 시작을 했고 나도 형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핸드볼 공을 만지면서 선수로서 꿈을 키우게 됐다.

Q. 원래 플레이 스타일은 지금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들었다.

선수 시절 초반에는 골 욕심이 많아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상이 자주 발생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30대 이후로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이타적인 선수로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줬다. 왜 농구나 배구에서 '가드' 혹은 세트에 따라 경기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나. 그 말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최전방에서 패스를 뿌리면서 팀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에 눈을 뒀던 것 같다. 아 그리고 저는 농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참고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광팬이었다.

Q. 농구도 취재하는 기자로서 농구를 좋아한다는 말이 괜스레 반갑고 더 궁금하다. 핸드볼과 농구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농구와 핸드볼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스텝을 비롯해 패스, 시야,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흡사한 면이 많다. 농구 영상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로 나는 스텝 판 커리, 데릭 로즈, 러셀 웨스트브룩 등 가드들의 플레이를 많이 참고한다.

Q. 한 팀에서만 10년 넘게 뛰게 됐다. 원 클럽 맨으로 오랜 기간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

특별한 것은 없다. 주위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내가 어깨 수술을 세 차례 했는데 좌절감이 컸던 시기에 가족, 선배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한 분을 꼽자면 지금 원광대 코치직을 맡고 계신 이재우 선배님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면서 힘이 돼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 또 세 차례 수술을 하면서 부상 방지와 관련해 나만의 몸 관리 노하우도 터득하게 됐다. 20대 새파랗게 젊을 때는 그저 패기와 자신감 만이 가장 컸는데, 30대 들어서는 노련미라는 것이 확실히 생기더라. 또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꾼 것도 좋게 작용한 것 같다.

Q. 핸드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후원자는 누구인가.

이창우 형은 인천도시공사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대표팀에서 10년 넘게 같이 생활했고, 유동근 코치님과는 이 팀에서 가장 오래 있었



다. 경기 중 내가 흥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창우형과 동근이 형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주고 또 상대 골키퍼나 수비 위치를 보고 조언을 많이 해줘 경기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되고 집중할 수 있었다.

Q. 아시안게임에 세 차례 다녀왔다. 대표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2008년 처음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뒤 이듬해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대표팀 구성은 윤경신, 백원철 등 이전에 대표팀을 이끌었던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세대교체를 하던 시기였는데, 이 때문에 주위에서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강적 스페인을 꺾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본선에 진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경기가 역대 핸드볼 대표팀이 스페인을 꺾은 유일한 경기이기도 하다. 아시안게임 등 10년간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을 꺾었던 이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싶다.

Q. 이제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다.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궁금하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선수로 더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세 번째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는 되든 안 되든 35살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각오로 달렸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물론 전성기에 비해 내가 갖고 있던 능력들이 많이 감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련미와 이타적인 플레이, 순간적인 센스 등 이 삼박자를 잘 발휘한다면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웃음). 또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것이 한창 치고 올라올 후배들에게도 자리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생각하고 있다.

Q. 은퇴 후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론이다. 한창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가끔씩 내가 4~5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만의 상상을 하곤 한다. 간혹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하곤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꿈나무들을 지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멋진 지도자가 되는 그림을 그린다.

Q. 이 자리를 빌려 심재복 선수처럼 핸드볼 선수를 꿈꾸는 전국의 핸드볼 꿈나무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달라.

예능인 서장훈 씨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자신은 '절대 농구를 즐기면서 한 적이 없다. 매 경기 전쟁터에 나섰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즐길 때 선수들의 역량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다. 내가 운동했던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 어릴 때만큼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저 즐겼으면 좋겠다.

Q. 핸드볼 선수 생활 중 특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고 우리 인천도시공사 멤버들과 리그 첫 우승을 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다. 우리 팀이 전국체전에서



심재복

생년월일

1987년 11월 27일생

포지션

센터백

신장/체중

175cm, 85kg

출신교

정석항공고/한국체대

는 우승을 했는데 리그에서는 우승을 못했다. 준우승이 가장 높은 성적이다. 꼭 우승을 차지하고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핸드볼도 재미있다는 종목이라는 걸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핸드볼만큼 익사이팅하면서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한다. 배구나 농구처럼 핸드볼도 충분히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바야흐로 미디어 시대 아닌가. 현재 리그에는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선수들이 많다. 고정 중계방송이 이뤄지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미디어가 더 발달되고 있는 만큼 협회나 구단에서도 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배구의 이재영, 이다영처럼 핸드볼에서도 리그를 이끌만한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구단에서도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많이 신경 써준다. 팬들께서도 먼저 SNS를 통해서 흥미를 가져 주시길 바란다. 🌐

심재복이 기억하는 월드컵스타 윤경신의 위상

9년 전인 2011년 독일에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거의 막내뻘이었고 윤경신 감독이 주장직을 맡았다. 독일에서 윤 감독님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 않나. 그런데 독일에서 윤 감독님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축구의 차범근 못 지않게 인기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번은 분데스리가 시절 윤 감독님을 응원하던 팬들이 유니폼을 갖고 직접 전지훈련장에 나타나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나로서는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짝 돋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 또 한편으론 그 당시 중계방송이나 SNS 문화가 지금처럼 활발했다면 국내 핸드볼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패기로 뚫뚫 뭉친 남자대표팀 기적을 노래할 준비가 끝났다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다시 한 번 뭉쳤다. 한국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회 세계남자 선수권대회(이하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서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무대가 될 세계선수권. 코로나19 속에서도 강일구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선수권의 변화

24개국에서 32개국으로

세계선수권은 격년제로 열린다. 2019년 대회는 24개국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32개로 늘어났다. 이번 대회는 32개국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벌인 뒤 각 조 3위까지 24개 나라가 결선리그에 진출, 결선리그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한다. 이후 8강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티켓을 따냈다. 한국은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러시아와 함께 H조로 분류됐다.

강일구 감독은 현재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진행 중이어서 패기와 힘이 넘치는 어린 선수들로 명단을 꾸렸다. 강일구 감독은 “대학생들인 만큼 체력이 뒷받침된다. 한국이 최고로 잘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중앙 싸움, 빠른 핸드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팀을 이끌던 이창우(인천도시공사), 김동명(두산), 박광순(하남시청)은 이번엔 없다. 강일구 감독 역시 몇몇 대학 선수들은 알지만 모든 선수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실업리그와는 달리 대학부는 대회가 많지 않다 보니 선수들의 실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믿음이 간다. 그간 대표팀 막내 라인 중 한 명으로 강일구 감독과 형들의 이쁨을 받았던 김진영(경희대, 라이트백)이 주인공이다. 강일구 감독 역시 김진영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김진영은 지난해 1월 아시아선수권 준결승 일본과 경기에서 연장 후반 승부에 쐐기를 박는 득점포를 쏘으며 핸드볼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강일구 감독은 “나랑 대표팀에서 많은 호흡을 맞췄다. 대학교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동현(한국체대, 레프트윙)과 전영제(강원대, 센터백)도 주축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명단을 살펴보면 또 한 명의 선수가 눈에 띈다. 바로 대표팀 유일한 고교생 골키퍼 이창우(대전대성고)다. 이창우는 대전대성고의 전성기를 이끈 주인공으로 고교 선배 박재용(하남시청)처럼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창우는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속공 연계 능력도 뛰어나다.

강일구 감독 역시 “미래를 보고 뽑았다. 예전에 상비군으로 대표팀 훈련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 신장도 좋고, 고등학교에서도 핵심인 선수다.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최우선

젊은 선수들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을 쌓게 되고, 강일구 감독 역시 앞으로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수가 많아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선수들의 건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 우선이다. 강일구 감독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참가국 대부분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 신청서를 냈다. 대표팀은 한국에서도 꼼꼼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집트로 넘어가서도 철저한 방역 아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고, 같은 조에 속한 팀들의 전력 분석도 놓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선수권에서 두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전통 강호다. 슬로베니아 역시 2017년 대회에서 3위에 오른 바 있다. 벨라루스 역시 러시아나 슬로베니아에 가려서 그렇지, 세계선수권에서 항상 중위권에 성적을 기록한 팀이다.

강일구 감독은 “슬로베니아는 쉽지 않은 팀이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팀이다. 현재 러시아가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어 변화가 많다고 하더라. 러시아를 공략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와 신장 차이, 실력 차이가 크지만 러시아를 잡아보고 싶다. 변수가 많은 대회인 만큼 한 번 도전해보겠다”라고 웃었다.

해외에서 대회를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팀들을 상대로 대등한 승부를 펼친다는 건 더욱더 쉽지 않다. 유럽은 신장, 힘, 기술을 모두 갖췄다. 그럼에도 강일구 감독은 유럽에 밀리지 않는 패기로 승부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열심히 고생하는 선수들과 끝까지 싸우고 오고 싶은 게 강일구 감독의 바

람이다. 강일구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체력이 정상아 아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겠다. 부딪혀보겠다. 패기로 뚫뚫 뚫쳐 다녀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조별예선 1승이 목표다. 젊은 선수들 성장의 장이 될 이번 대회에서 강일구 호는 어떤 수확을 가지고 오게 될까.

한편, 한국은 6년 만에 출전한 2019년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해 24개국 가운데 22위로 대회를 마쳤다. 역대 최고 성적은 1997년에 기록한 8위다. 세계선수권은 1월 13일 G조 이집트와 칠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

대회 조 편성

A조	독일	헝가리	우루과이	카보베르데
B조	스페인	튀니지	브라질	폴란드
C조	크로아티아	카타르	일본	앙골라
D조	덴마크	아르헨티나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E조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F조	포르투갈	알제리	아이슬란드	모로코
G조	스웨덴	이집트	체코	칠레
H조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대한민국	러시아

한국팀 경기 일정

1월 15일	02:00(한국시간)	대한민국 vs 슬로베니아
1월 16일	23:30(한국시간)	대한민국 vs 벨라루스
1월 18일	23:30(한국시간)	대한민국 vs 러시아





국가와 언어 달라도 핸드볼로 소통하는 곳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

Seoul Expats Handball Club

1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핸드볼이란 공통어로 교류하는 곳, 인구 1천만 도시 서울에서 눈길을 끈다. 작년에 재창단된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Seoul Expats Handball Club)이다. 짧은 기간의 훈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제12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 남자 챌린저부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핸드볼이 좋아서 뭉친 그들의 이야기, 이들을 이끌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 이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Q. 2020년 11월 초 제12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 남자 챌린저부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회 전까지 시간도 많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회가 시작된 후 팀원들끼리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어요. 대회 유치와 방역에 신경 써주신 대회 관계자분들 덕분에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Q. 외국인들로 구성된 핸드볼 동호회라는 점이 이색적인데, 언제 창단했나요.

우리 팀은 지난 2009년 핸드볼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창단했어요. 2014년까지 활발하게 클럽 활동을 하다가 리더였던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다른 회원들도 각자 직업이 생기면서 활동이 점차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다 2019년에 핸드볼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재창단 했죠.

Q. 재창단 후 짧은 기간 내에 또 코로나19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팀들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팀을 다시 창단한 이후,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실내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회원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죠.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빌려 훈련을 했어요. 또한 팀원들이 외국인인 것도 도움이 됐어요. 한국과 다르게 외국에서는 핸드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각자 어릴 때부터 핸드볼을 접했기에 기본 실력들이 있었죠. 열정과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우승이었다고 봐요.

Q. 대표님 외에 클럽 회원 모두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은 한국인들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클럽은 핸드볼을 좋아하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모인 팀이에요. 핸드볼만 좋아한다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우리 클럽은 각 국가의 핸드볼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점만 괜찮다면요. 대회 이후에 실제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클럽 운영이 어려워 아쉬워요.

Q. 동호회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요.

'승리만을 바라보지 않고 승부욕까지는 놓지 말자.' 이게 우리 신조에

요. 핸드볼을 즐기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만의 다짐이죠.

Q. 앞으로 이 클럽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발걸음 댄지 얼마 안 됐기에 클럽의 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예요. 이후에는 더 높은 레벨의 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핸드볼이라는 종목이 생활체육으로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Q. 핸드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핸드볼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핸드볼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템포의 전개와 팀 스포츠라는 요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몰아치는 전개 속에서 간결하게 맞아 떨어지는 팀원 간의 호흡은 스피드한 매력을 잘 내죠. 많은 사람들이 핸드볼 매력에 빠져봤으면 해요.🏐

SIDE INTERVIEW



**‘대학생, 대학교수, 사업가.... 직업도 국적도 가지각색’
주장 토마스 “고향에서 했던 핸드볼 많이 생각나더라”**

현재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에는 30명의 회원들이 있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회원들이 함께한다. 그중 핸드볼 강국 프랑스 국적의 회원들이 17명이나 된다. 프랑스 출신이자 현재 성신여대 교수인 주장 토마스와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

Q. 팀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나요.

한국에 온 후 고향에서 했던 핸드볼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2013년에 핸드볼 팀을 찾았고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Q. 서울 외국인 핸드볼 클럽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우선 핸드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 실전적인 스킬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Q. 한국 핸드볼 리그를 자주 보나요? 외국인 선수가 많은 클럽에서 보기에 외국 핸드볼과 한국 핸드볼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보곤 해요. JTBC GOLF&SPORTS 채널에서 중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국 리그를 보면서 느낀 점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럽 핸드볼 선수들은 체격이 커 큰 공격을 주로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9미터 슛인데, 유럽 선수들은 9미터, 10미터 중거리 슛을 선호하지만 한국의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선수들은 신장이 작아 스피드를 살린 플레이를 보여줘요. 또 다른 점은 핸드볼의 인기죠. 유럽에서는 핸드볼이 매우 유명해서 모든 도시에 핸드볼 클럽이 존재해요. 또한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핸드볼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어요. 반면 한국에서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어서 시설이 열악해요. 때문에 아마추어 클럽들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휘경여고

재도약 꿈꾸는 핸드볼 명문 휘경여고 vs 의정부여고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휘경여고와 의정부여고

휘경여고는 1975년 창단됐다. 무려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기 종목 금메달 신화를 쓴 여자 핸드볼 대표팀 코치였던 박재수 감독의 뒤를 이어 박기정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감독직을 맡은지는 2년 정도 되었다. 박기정 감독의 옆에는 이 학교 출신 고영복 코치가 있다.

휘경여고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3위에 올랐고, 지난해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인천여고와 함께 3위에 입상했다. 최근 여고부를 양분하고 있는 황지정보산업고와 일신여고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휘경여고 역시 꾸준히 3위권에 입상하며 전통의 명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휘경여고는 핸드볼 전용 체육관도 있다. 체육관 리모델링도 꾸준히 해주는 등 학교 지원이 좋은 편이다. 제1회 조정순 체육상을 비롯하여 백제체육대상 등 권위있는 체육상을



라이벌,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를 의미한다. 이번에 소개할 팀은 여고부 라이벌 휘경여고와 의정부여고다. 두 학교는 최근 성적이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예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할 정도로 뛰어난 명성을 가졌다. 선의의 라이벌로서 동시 반등을 꿈꾸는 ‘핸드볼 명문 학교’ 휘경여고와 의정부여고를 소개한다.

수상하며 명가재건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여고는 경기도 내 여자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다. 의정부여고는 1968년 개교한 지역내 명문고다. 핸드볼 팀은 1979년 창단했다. 휘경여고와 마찬가지로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가능초-의정부여중을 거친 선수들이 의정부여고에 합류한다. 의정부여고는 1989년, 1990년, 1992년, 1998년 전국 체전 정상에 올랐고, 총 60여 차례의 전국대회 입상에 빛나는 전통

의 핸드볼 명문고다. 김종진 감독-김은정 코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K슈가글라이더즈 연은영-조수연, 인천시청 김선해, 삼척시청 연수진-이효진, 광주도시공사 우하림-한승미 등이 휘경여고를 나왔다.

의정부여고 역시 뛰어난 선수들을 다수 만들어내며 핸드볼 명문고의 위엄을 보여줬다. 경남개발공사 박새영, 삼척시청 송지은, SK슈가글라이더즈 이한솔-유소정 등이 있다.



김연우

빛나는 과거는 뒤로하고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했듯 의정부여고와 휘경여고는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을 바라며 지금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 수급이 쉽지 않다. 의정부여고 김은정 코치는 “다들 큰 경기도에서 핸드볼 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놀란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예전에는 팀이 정말 많았는데 선수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 모두 해체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예전에는 전국체전도 제패하고 경기도 내 이름을 날린 의정부여고다. 그러나 최근 성적은 신통치 않다. 의정부여고는 2017년에 열린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일신여고와 함께 3위에 입상한 게 최근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엘리트 선수가 부족해 핸드볼을 좋아하는 일반 학생 2~3명을 선수 명단에 등록한 뒤 대회에 나가는 상황이다.

휘경여고 역시 마찬가지다. 7~8명의 선수로 근근이 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정 감독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교체 선수가 없어 대회 때는 선수들이 절대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쓸쓸한 미소

휘경여고 박금산 교장선생님

INTERVIEW



Q 핸드볼 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특히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준 선수들이 고마울 뿐이었죠.

Q 원래 핸드볼이라는 종목을 좋아했나요.

네, 그럼요. 스포츠는 다 좋아하고 실제로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핸드볼 팀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실업팀 못지않은 학교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Q 휘경여고 핸드볼 팀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리고 실업팀에 모교 졸업생 선배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어린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 받길 바라요. 또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상위권을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Q 2021년 비상할 휘경여고 핸드볼 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로 온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고, 재밌고 잘 하는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선수가 되길 기원합니다.

를 지었다.

그래도 두 학교는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여고 선수단은 “예전에는 우리가 휘경여고보다 잘 했다”라며 다시 선전할 것을 예고했다. 휘경여고 선수단도 “우리나 의정부여고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동반자의 길을 걸을 것을 약속했다.

두 팀의 미래를 이끌 대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의정부여고에는 골키퍼 이주현이 있다. 이주현은 팀 주장으로 이제 3학년에 올라간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신장이 좋고,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로 많은 핸드볼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다. 특히 이주현은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 영재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헝가리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 필드에서는 나지현이 있다. 나지현은 빠른 슈팅과 속공 플레이가 일품인 선수이나 최근에는 골반 부상으로 주춤하다.

휘경여고에는 김연우가 있다. 팀의 에이스로 매 경기 팀에서 가장 많은



Q 의정부여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본교는 1958년 개교 이후, 약 25,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의 전통 명문 여고입니다. 학생 개개인이 탄탄한 학력과 반듯한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삶을 주도로 설계하여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운동부 운영을 비롯한 학생들의 체력증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봅니다.

Q 핸드볼 팀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요.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는 보람되지 않은 일이 없었지만, 특히 핸드볼과 같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에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때도 물론 뿌듯한 마음이 들고는 했지만,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고 기량 연마를 위해 체육관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 아이들의 의욕에 찬 표정과 역동적인 몸짓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의정부여고 핸드볼 팀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수 개인이 반듯한 인성과 우수한 기량을 갖춰 상급학교나 실업팀에 입단하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교를 거쳐나간 선수들이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인정받고 나아가 청소년 및 국가대표로서 왕성히 활약하게 된다면 후배들의 자긍심 및 애교심은 한층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교직에 발을 디딘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가 과거에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 년 가까이 대회는 물론 각종 훈련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 그 끝이 당장 보이지 않기에 우리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에 맞춰 훈련에 열중하다 보면 화창하게 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갈고닦아왔던 여러분들의 역량은 꽃을 피워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득점을 올린 선수로 이름을 남기는 선수다. 그는 마치 연수진처럼 사이드에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플레이를 한다.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다. 끈기로 상대 거센 저항을 버텨낸다.

휘경여고와 의정부여고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를 배출했다. 의정부여고 이원정은 1라운드 7순위로 컬러풀대구에 지명됐다. 휘경여고에서는 박지영이 광주도시공사, 박지호는 서울시청 지명을 받았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열심히 훈련에 임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아직 그들에게는 빛나고 찬란한 내일이 오지 않았다. 김은정 코치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아이들이 핸드볼이라는 운동을 즐기며 했으면 좋겠다. 이제 신인 선수들이 조금 올라오는 만큼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기정 감독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핸드볼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핸드볼계의 전통의 명가 두 고교의 밝은 미래를 <핸드볼코리아>도 응원한다. 🌐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 연임 성공



최태원(60) SK그룹 회장이 제 27대 대한핸드볼협회장에 당선됐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12월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취임했으며 2013년 연임했다. 이후 2014년 초 협회장에서 물러났다가 2016년 대한핸드볼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핸드볼연합회의 통합 회장에 추대돼 핸드볼과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17조에는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태원 회장은 올해 10월 대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를 통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에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 스포츠평정위 심의를 거쳐 3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핸드볼협회를 맡은 뒤 핸드볼인들의 꿈인 핸드볼경기장을 건립했고, SK호크스(남자)와 SK슈가글라이더즈(여자)를 창단하는 등 한국 핸드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유소년 육성을 위한 핸드볼 발전재단 설립과 핸드볼 아카데미 운영, 국가대표팀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 한국인 최초 OCA 부회장 선임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회장에 선임됐다. 최 회장은 12월 17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제39차 OCA 총회에서 OCA 경기단체 총괄 부회장 겸 집행위원회에 선임됐다. 이번에 신설된 경기단체 총괄 부회장은 아시아 전역의 90개 스포츠 연맹을 관장하는 역할이다. 한국인이 OCA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맡은 건 최 회장이 처음이다. OCA는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및 대회 주관 등 아시아 스포츠를 총괄하는 국제 올림픽기구로 아시아 45개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가입돼 있다. 또 OCA 집행위원회는 OCA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준비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정책기구다.

하남시청 박광순, 2라운드 FILA MVP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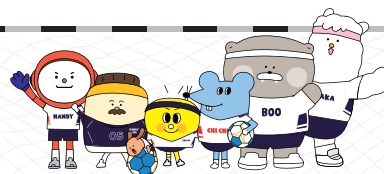


하남시청 레프트백 박광순이 FILA 포인트 87점을 얻어 73점을 획득한 두산 정광중, 정의경을 제치고 남자부 2라운드 MVP에 올랐다. 박광순은 2라운드 5경기에 모두 출전해 37득점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이 중위권 싸움을 펼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박광순은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득점 1위(89득점), 어시스트 6위(25어시스트)에 올라 있다. 하남시청이 기록한 280점 중 114점을 박광순이 책임지고 있다. 환산하면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한편, 남자부 1라운드 MVP는 하남시청 수문장 박재용이 99.2점을 기록하며 95점을 획득한 박광순을 제치고 MVP 자리에 올랐다. 여자부 1라운드 MVP는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다. 강경민은 1라운드에 68득점, 2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광주도시공사 이변에 힘을 보태고 있다. 2위는 삼척시청 송지은, 3위는 SK슈가글라이더즈 유소정이다.



초등학교에서 스포츠클럽으로 10년째 핸드볼을 지도하고 있는 초등 교사입니다. 비전문 선수이지만 핸드볼이 좋아 무작정 시작한 활동이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번호에서 천안인애학교 핸드볼부의 내용을 보며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닌 즐거운 체육활동,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지향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취지와 인애학교 핸드볼부 학생들이 느낀 감정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도 핸드볼을 통해 많은 자신감과 협동심, 배려심, 교우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내년에도 또 시작해야 되겠죠? 인천 논곡초등학교 핸드볼 스포츠클럽팀 파이팅~ <김영화>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1·2월호(vol. 50)에 대한 의견을 2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FILA

